

광주신세계, '뉴 스타트 페스티벌' 개최

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명절 이후 '황금쇼핑 주' 특수를 잡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 '뉴 스타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1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가 끝나면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명절을 맞아 수령한 성가·상여금이나 상품권을 활용해 쇼핑을 하려는 고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절 연휴가 끝난 후를 '황금쇼핑 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짧았던 이번 명절기간을 고려할 때, 다가오는 주말(23일~25일)이 쇼핑 피크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설이 끝난 후 '황금쇼핑 주'의 패션·잡화 매출은 설 이전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 패션 전문관인 패션스트리트의 매출이 24.3% 증가했고, 여성부문의 매출도 8.6% 증가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황금쇼핑 주' 패션·잡화 매출 8.5% ↑

잇 미샤·르베이지 등 브랜드 할인 행사 '풍성'

올해 역시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 박인철 팀장은 "장기간 이어진 최강 한파로 인한 봄 신상품 소량 저조로 지난 한달간 여성, 남성, 스포츠 장르 모두 전년과 비교해서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며 "한파가 누그러지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봄 신상품 수요와 졸업·신학기 선물 수요를 선점하고 '황금쇼핑 주'의 매출을 극대화 시키고자 '뉴 스타트 페스티벌'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먼저 2/23 ~ 2/28까지 옷장 가득 채우고 싶은 봄옷을 제안하는 '신세계 스타일 워크'가 열린다.

대표품목으로 '잇 미샤'의 오피셜한

분위기가 나는 '그레이 체크 재킷'이 35만 9,000원, '체크 패턴 팬츠'가 18만 9,000원에 준비되어 있으며, 풍성한 실루엣이 특징인 '르베이지'의 '플리츠 원피스'가 98만원, 커다란 자수 장식이 보이는 '마쭈'의 '데님 재킷'이 47만 9,000원에 준비되어 있다. 톤온톤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시스템'의 '트렌치 코트'도 73만 9,000원에 옷장을 채울 준비를 마쳤다.

'신세계 스타일 워크' 기간 중 졸업·입학을 앞둔 신학기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5개 브랜드가 각 층 본매장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바네사 브루노'(2/17~2/28), 'DKNY(여성)'과 '질

스튜어트'(2/23~2/25)는 신학기 고객 대상으로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마쭈'(2/23~2/25)는 40/60/100만원 이상 구매시 4/6/10만원 즉시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클립모나코(남성)'(2/23~2/25)는 기본 10%할인에 추가 10% 할인혜택까지 제공한다.

여성 부문 행사도 진행된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5층 행사장에서 '영캐주얼 인기상품전'이 열린다.

대표 품목으로 'EnC'의 재킷과 원피스가 각각 19만 9,000원, '시슬리'의 카디건과 코트가 19만 9,000원·26만 9,000원에 준비되어 있다. 패션 부문 외에도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질 스텐어트'의 핸드백을 23만 8,400원에, 정장과 캐주얼 모두 잘 어울리는 '스톤헨지'의 가죽시계를 19만원(블랙)/21만원(브라운)에 각 층 본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학기를 맞는 아이를 위한 행사도 준

비돼 있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8층 행사장에서 일년에 단 2번만 열리는 '쁘띠바또'의 이월 특집행사가 열린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120년 전통의 프랑스 유아동복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외에도 '타미힐피거 칠드런'의 티셔츠와 바지가 각각 5만 4,600원과 8만 7,500원, '노스페이스 키즈'의 책가방 세트가 8만 9,000원, '힐라키즈'의 운동화가 4만 4,100원에 준비되어 있다.

시즌 이벤트 홀에서는 1년에 한번 열리는 '유현궁 창고 대공개전'이 열린다. '유현궁 창고 대공개전'은 산뜻한 새 이불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대표품목으로 기모 프롬 차렵세트(Q/이불+패드+베개커버2개)가 7만 9,000원, 경추 베개 1p가 9,900원에 준비되어 있다.

/유희동 기자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22일 본부 11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지역본부장 회의'에 참석한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22일 중앙본부에서 열리는 '농협중앙회 2월 정기이사회'에 참석한다.

수출 증가세 '빨간불' 조업일수 감소 영향

2월 수출이 설 연휴 등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6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은 설 연휴 등 영향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조업일수가 15.5일에서 13.0일로 2.5일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2016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15개월 연속됐던 수출 증가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이 어렵게 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억 5,000만 달러로 1년 전(17억 9,000만 달러)보다 14.6% 증가했다.

업종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33.4%), 석유제품(28.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16.1%), 선박(-19.7%), 무선통신기기(-40.7%)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유럽연합·10.0%), 베트남(10.4%), 일본(14.8%) 등은 늘었고 중국(-7.8%), 미국(-13.9%) 등은 줄었다. 수입액은 293억 달러로 원유(26.4%), 반도체(12.0%) 등에서 늘면서 1년 전보다 13.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기중앙회, 공동구매 전용보증 345개 중기 1,193억원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신청 접수 결과 345개 중소기업이 21개 협동조합과 함께 1,193억원의 보증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는 대기업보다 구매물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비싼 단가에 자재를 사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조준호 중기중앙회 공동사업팀장은 "이번에 보증한도 600억원의 2배가량 신청했다"며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가 최저임금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청년 멘토링 발대식

IBK기업은행은 2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신입 행원 40명과 전국 대학생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IBK 청년희망 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희망 멘토링은 기업은행 신입 행원이 취업준비 대학생에게 '취업 멘토'가 되고, 전국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 멘토'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학습 멘토 활동 기준에 충족한 대학생에게는 1인당 장학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IBK 청년희망 멘토링은 대학생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동시에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농협, 조합원 1만8,000명 전국 최대 지역농협으로 '우뚝'

농협 전남본부, 별량농협과 합병등기 완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21일 순천농협이 별량농협과 합병등기를 완료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1997년 별량농협을 제외한 순천시 13개 지역농협을 합병한 순천농협은 별량농협과 합병을 마무리함으로써 총자산 1조 9,000억원, 조합원 수 1만 8,000명의 전국 최대 규모가 됐다.

그동안 독자경영을 해 온 별량농협은 2013년 경제사업 손실이 발생해 2014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 명령을 받고 합병을 추진해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태선 본부장은 "새로 출범한 순천농협은 읍면 지역농협까지 완벽한 통합을 완성한 것"이라며 "농협의 경영안정은 물론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지역농업 발전,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국 최고의 지역농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20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조준호 순천시, 채원영 보해양조 사장, 김선일 순천엔매실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해양조, 지역 매실산업 활성화 앞장

시장개척 위해 순천시-순천엔매실과 맞손

보해양조가 지역 매실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해양조는 지난 20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조준호 순천시, 채원영 보해양조 사장, 김선일 순천엔매실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보해양조는 고품질의 매실농축액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순천엔매실과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인 보해 매실농원에서 생산되는 원재료를 순천엔매실의 제조설비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매실제품의 홍보와 국내의 시장 개척을 위해 보해와 순천시, 순천엔매실이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순천과 해남 등에서 생산되는 매실의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획됐다.

그동안 보해양조와 순천시, 순천엔매실 관계자들은 매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매실농원을 가진 보해양조가 매실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됐다"며 "보해양조의 매실 가공 노하우가 매실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업체들과 공유돼 동반성장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미에 기자

aT, 평창 올림픽 연계 농식품 수출상담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이 병호)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수출상담회인 'Buy Korean Food 2018(이하 BKF)'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BKF는 ▲1대1 수출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세미나 ▲한국 농식품 제품 쇼케이스 ▲평창 올림픽 및 K-FOOD Plaza 관람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22일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20개국 해외 바이어 74명과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186개사가 참가해 1대1 수

출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 수출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의 현지시장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정보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소수출업체의 신규시장 진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열린다.

국내 수출 업체들의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23일에는 18개국 57명의 바이어가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 등 평창올림픽 경기 관람과 함께 K-Food Plaza를 방문, 평창올림픽 홍보 및 농식품 제품 시식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유희동 기자

인력공단 광주본부, EPS 서포터즈 위촉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대수)는 21일 2018년도 EPS 서포터즈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EPS 서포터즈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언어소통 및 문화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된 통역원이다.

지난해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통역원 등 8명이 활동했으며, 올해는 태국 통역

원 등 4명이 추가로 위촉돼 활동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언어소통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PS 서포터즈의 통역 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희동 기자

목포벤처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전남진흥원, IT분야 기업·예비창업자 대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이 전남지역 IT·SW 분야 특화기업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목포벤처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21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라

면 IT·SW 개발 관련분야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모집규모는 총 3개실, 입주면적은 38.25㎡로 모두 동일하다.

월 임대료는 6만 1,940원으로 전기와 가스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별도로 납부

/유희동 기자

광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금융교육

용돈기입장 쓰는 법 등 눈높이 프로그램

광은은행은 21일 본점 2층 금융박물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2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을 부탁해'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지난달 광은은행 다문화가정 여성 문화교실에 만족한 수료

생들이 자녀들의 금융교육을 요청해 마련됐다.

현명한 용돈관리를 위한 용돈기입장 쓰는 법, 보드게임을 통한 재미있고 쉬운 경제알기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서미에 기자



광은은행과 함께 배우는 금융을 부탁해

광은은행